

아이폰 7, 삼성과 경쟁서 성과낼까

‘혁신적 변화’ 안보여 무선이어폰 ‘에어팟’ 채택 한국 10월께 공급할 듯

애플의 ‘아이폰7’이 출시되면서 삼성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애플은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빌 그레이엄 시빅 오토리움에서 개최한 신제품 발표회에서 아이폰 7(4.7인치)과 대화면 7플러스(5.5인치)를 선보였다. 베일을 벗은 아이폰7은 전반적인 외관에서 전작인 아이폰6S와 비슷하다. 눈에 들어오는 변화를 꾀하지는 않아 이전처럼 상당히 혁신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사전에 온라인에 유출된 내용과 스펙도 크게 차이가 없다.

가장 큰 변화는 3.5mm의 이어폰 단자가 제거됐다는 점이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공개했다. 케이스를 열면 각각 아이폰과 애플 워치에 연결되며 ‘시리’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이어폰을 귀에 꽂는 행동을 탐지하도록 듀얼 광학 센서와 동작 가속도계도 탑재했다. 귀에서 이어폰을 빼면 바로 음악 재생이 중지되며 켜지면 자동 재생된다. 가속도계는 사람이 말할 때를 감지한다.

카메라 기능도 강화했다. 신제품에 탑재된 1200만 화소 카메라에는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능이 채용됐다. 아이폰7플러스는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도 탑재돼 사진 촬영에 2배의 광학 줌과 최대 10배의 디지털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왼쪽)가 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예술가인 매디 지글러에게 아이폰 7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다.

아이폰 사상 최초로 방수·방진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나 아이폰에 적용된 생활 방수 및 방진 기능은 일상적인 마모에 의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젖은 아이폰의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고 세척, 말리는 법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야 한다.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되지 않는다.

제품 상하단에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해 전작과 비교해 최대 2배 더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 라이트닝 커넥터를 탑재한 이어

팟과 기존의 헤드폰, 액세서리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3.5mm 헤드폰 잭 어댑터도 제공한다.

이같은 기능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과 맞대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방수·방진 기능의 경우 삼성이 올 초 먼저 선보이며 호응을 얻었으나 애플은 뒤늦게 삼성보다 미흡한 수준으로 따라왔다는 지적이 있다.

무선 이어폰의 등장도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미지수다. 편리한 기술 향상이라는 의견과 이

용에 익숙치 않아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품과 따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다만 전작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존의 아이폰 팬들을 집결하겠다는 전략이 주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는 실버, 골드, 로즈 골드, 블랙, 제트 블랙 색으로 출시되며 9일부터 판매한다. 한국은 1~3차 출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구입 가능한 시기를 10월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뉴스

“추석 신권 교환, 은행 이동점포에서”

주요 역사·공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마련 단기운전자확대특약·긴급출동서비스특약 유용

추석 연휴 부모나 조카에게 줄 신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은행권이 주요 역사 및,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마련한 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또 연휴 기간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모는 교대 운전 대비하고 싶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은 여섯 번째 금융꿀팁으로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8일 안내했다.

미리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소비자라면 은행권의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해보자.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점포에서는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우리 등 6개 은행은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도 준비했다.

국민은 고속철도(KTX) 광명역 1번 출구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우리는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여주휴게소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KEB하나는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만남의 광장, 농협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망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서 운영한다. 은행별 이동점포 운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특약’도 추석 연휴에 유용한 상품이다.

추석연휴에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견인차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 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대 운전자에 유익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상품도 있다. 이 상품이 가입하면 현재·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뉴스

8월 가계대출 8.7조 늘어... ‘사상 최대’

주택담보대출 6조2000억원 늘어 최고 증가폭...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늘어

저금리 기조와 주택거래량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가계 빚이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8조7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기준 2008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2015년 10월(9조원 증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한

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한 달 동안 6조2000억원 늘어난 5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08년 이후 8월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2조7000억원, 2월 2조6000억원을 기록하다가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4조4000억원, 4월 4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이후 5월 4조7000억원, 6월에는 4조8000억원, 7월 5조7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주택거래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떨어지면서 대출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2000호로 전월(1만4000호)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2조원으로

전월(6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중소기업 대출(1조9000억원)이 전월말 휴일에 따른 결제성자금 대출 상환의 월초 이연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대기업대출(484억원)도 증가규모가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수신잔액은 1430조 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전월 부가가치세 납부로 감소했던 기업의 결제성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정기예금은 지방정부 자금 예치 등으로 각각 12조원, 1조원 늘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1조1000억원 줄었고, 머니마켓펀드(MMF)도 국고여유자금 인출 등으로 3조9000억원 줄었다. 주식형펀드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 /뉴스

조선3사, 설비·인력 20% 이상 줄인다

2018년까지...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안 마련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3사가 2018년까지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주요 현안 보고를 발표했다.

대형 조선3사는 중장기적 수주감소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을 수립했다.

우선적으로 회사의 덩치부터 줄일 예정이다. 대형 조선3사는 2018년까지 설비 규모를 지난해 대비 20% 감축한다. 직영과 외주를 포함함 인력 역시 2018년 말까지 30% 줄인다.

글로벌 조선시황 회복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빅3 조선사가 생존할 수 있도록 고강도 자구노력도 추진한다.

대우조선은 기존 자구계획을 강화해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금 부족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형 3사의 총 자구안 규모는 10조 3000억원 수준이다. 대우조선이 5조 3000억원, 현대중공업이 3조5000억원, 삼성중공업이 1조5000억원을 각각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지원규모를 최소화하며 조선사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